

교회소식

1. Covid 19 Level 3 이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신앙의 자세로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2. 공동체 인도자 화상 모임이 오는 26일(화) 오후 7시 45분에 있습니다(교재 10과 연습).
3.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요한계시록 1장-21장까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범위: 요한계시록 1장-21장 (매일 3장)

4. 믿음으로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매일 저녁 9시).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전으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5. 임병숙 권사님이 뇌출혈로 투병 중입니다. 속히 깨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7.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October

교회사역일지

10월 17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10월 27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10월 31일(주일)
감사 주일

기도순서

10월 31일 (주일)
박제용 장로
11월 3일 (수)
박후임 권사
11월 7일 (주일)
박병민 장로
11월 10일 (수)
서영애 집사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43호 2021.10.24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 148:13-14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361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현석호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열왕기상 3:4-12	인도자
찬양대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Sermon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453장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캄보디아 Covid-19 현황: 어제보다 신규 확진 76.2% 감소 - 이는 어제까지 신규 확진은 간이 검사와 PCR 검사 결과 모두 반영했으나 오늘부터는 간이검사를 제외한 때문인데, 바로 어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천명 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신속 검사 키트 확진자는 제외하고 PCR 검사 확진자 수만 집계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평균 70%를 상회하는 백신 접종률을 무기로 이제부터는 정부 정책을 본격적인 'with COVID- 19'로 전환하려는 훈센 총리의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생명나무 유치원 ‘왜 아직까지 문 열지 않으세요?’: 엇그제 유치원이 속한 군청 교육부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의 다른 유치원과 학교는 다 문을 열었는데 생명나무 유치원은 왜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며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원아들 등교시켜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생명나무유치원이 교육부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10월, 11월 일부터 등교 재개를 목표로 조심스럽게 등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군청 교육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니 더욱 힘을 얻어서 최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장로교회 ‘은혜’ 그리고 ‘자발적 사랑의 발현’: 코로나의 상황에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한날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할 11명의 세례자들을 지난 7월과 8월 세 번으로 나누어서, 장소도 달리해서 세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세례를 베푸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는데 비록 상황은 아직도 그렇게 낙관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는 선교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살림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서리집사 및 피택장로, 전도사에 은혜를 부으소서.
2. 두 개 교회 공동체가 자전 자치 자립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박제란 권사
성	경	Scripture	베드로전서 2:1-3
설	봉	Sermon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교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
주	기	The Lord's Prayer	다같이

나눔란

2021년 10월 17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왜 고난이 유익인가> 시편 119:71

고난 없이는 인생의 성숙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이 없어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요 16:33). 시인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며 자기의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며 왜 환난을 즐거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줍니다: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니 병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옅은 참담한 고난을 겪은 후에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본다는 고백을 합니다(욘 42:5).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하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고통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며 환난을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기에 고난은 유익하며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 고난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지옥에서 고난받던 부자는 이 땅에 살 때는 한 번도 고난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눅 16:19).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과 같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시 116:3-4). 더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고통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종과 죄수의 삶을 살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창 45:5)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다듬어졌기에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모난 것이 다듬어지며 우리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엡 4:13). 고난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기에 온전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 유익합니다.

3)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다가 환난을 당하면 비로소 은혜로 구원 받은 자답게 악한 때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엡 5:16)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을 알게 됩니다(롬 13:11). 필립 안시(Philip Yancey)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Why God? The question that never goes away)라는 책에서 “고통을 당할 때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를 듣게 된다”라며 “고통의 속량”을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속량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연단 받고 참 소망을 깨닫는 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고통을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의 영원한 고통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영적 무지이기에 영적 무지를 깨우는 고난이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공동체 안에 있는 고난을 겪는 자들 안에 우리가 있는가 물으십니다. 함께 고통받으며 위로하는 갈보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2. 성령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